

아름다운 연변에 놀러 오세요 ~

연변 문화관광추천설명회 산동성에서 개최



3월 7일,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관광추천설명회가 산동성 유방시(潍坊市)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연변의 관광자원을 전시하고 관광소비시장을 활성화하며 연변의 문화관광산업 영향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다.

주정부 부주장 윤조휘는 축사에서 유방시는 력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두터우며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동아시아 문화의 수도'로서 독특한 제로(齐鲁) 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변은 중국-로씨야-

조선 3 개국 접경지이자 장백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유일의 조선족 자치주이고 최대 조선족 밀집지역으로서 예로부터 노래와 춤의 고장, 축구의 고장 등의 명성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변은 유방-연길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두 지역의 관광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두 지역간의 시장 협력에 좋은 기초를 다지게 된다. 윤조휘는 연변은 생태가 완벽하고 문화가 다원적이며 시적인 정취가 풍부

하고 상업 기회가 무한하며 투자와 창업이 있는 광활한 옥토라며 두 지역이 우의를 다지고 힘을 모아 좋은 발전 방안을 함께 도모하며 한마음으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 두 지역 문화관광 발전의 결실을 함께 엮어갈 것임을 밝혔다.

유방시인민정부 부시장이며 시공상연합회 주석인 천단매는 환영사에서 유방시는 발해만 남안에 위치해있는 1,000만명급 인구의 해변도시라고 소개하면서 남쪽은 산과 잇닿았고 북쪽은 바다와 린접했으며 제문화와 로

문화, 해양문명과 농업문명의 융합, 1,000년 이상의 도시 력사를 갖고 있고 풍부한 자연경치와 유구하면서도 두터운 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변은 민속풍광이 독특하고 풍경이 수려하며 기후가 쾌적하여 최근 폭발적 인기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되었다면서 연길-유방-장사 로선 개통으로 쌍방을 위해 협상, 협력의 좋은 플랫폼을 마련하고 연변, 유방 두 지역이 협력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역 서비스를 참담게 잘하며 량질의 문화관광 자원과 제품에 깊이 접목하여 련합과 윈-윈을 실현하고 이로부터 두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했다.

소개회에서 연변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관광국 국장 송업이 연변의 풍부한 특색 관광자원을 둘러싸고 '민속마을, 도시관광, 생태건강, 향토음식, 과학보급, 변경관광, 빙설동화' 등을 포함한 7가지 오락 새 놀이 테마 라인을 발표했으며 동영상 형식으로 연변의 각 현, 시의 문화관광 특색자원과 문화관광 신제품을 선보이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연변 관광의 우수함과 아름다움, 신선함과 신기함, 특별함을 전시했다. 행사중 청도항공회사와 연길공항 대표들이 항공 로선과 공항 서비스에 대해 홍보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길-유방 항공 로선 개통 가동식을 진행했다.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 련행사 대표들은 각각 전략적 협력 기틀 협의서와 관광객 상호 교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사후 상호 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 연변가무단과 왕청현상모 무용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연변의 독특한 문화 특색을 보여주고 회의장 밖에는 각 현, 시의 부스를 설치하여 레빈들이 직접 연변의 독특한 민속을 체험하고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도록 했다.

연변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관광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 연변은 자원 우세를 발휘하여 연변 관광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상품, 새로운 로선을 끊임없이 출시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고품질 관광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방시인민정부 사무실 2급 조사연구원 조립충과 유방시문화관광국 당초 성원이며 시문화시장종합법치지대 지대장인 리국도, 연변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관광국 4급 조사연구원 리춘자, 청도항공, 유방공항, 연길공항과 두 지역의 문화관광기업 관련 책임자 등 백여명이 이번 추천설명회에 참가했다.

/ 김영화기자

륙정산풍경구, 브랜드 전파력 동북지역 6 위!



최근 2024년 1월 5A급 풍경구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돈화시 률정산문화관광구가 구역(동북지역) 세분화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최근년간 돈화시 률정산문화관광구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교량으로 각종 명절활동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우대복지정책을 출시해 풍경구의 다원화 문화와 문화관광 업체를 부

단히 풍부히 했으며 '문화성경 휴가 천당' 브랜드 지명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음력설 기간 률정산문화관광구에서는 루계로 관광객 도합 20만 2,100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41.96% 증가되고 종합수입 326만 8,000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9.13% 증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

/ 돈화발부

개산툰진 체험관광 개발로 향촌 진흥에 활력



최근년간 룡정시 개산툰진은 전통 문화와 흥색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지방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학습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학습'이라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개산툰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체험학습을 통해 농촌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가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촌 진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애국주의교양-개산툰진 흥색풍경구 학습체험관광', '문화전승-중국 명절문화 체험관광', '막걸리제작 체험관광', '배추김치 만들기 체험관광', '자매전장제작 체험관광', '향촌체험-농경문화 관광체험', '향촌체험-백년 옛집 체험관광', '향촌체험-꽃축제 체험관광' 등 8개 체험 학습관광 로선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선택을 제공했다.

최근년간 룡정시 개산툰진은 전통 문화와 흥색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지방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학습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학습'이라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개산툰진은 전통 문화와 흥색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지방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학습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학습'이라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까지 72개 팀, 도합 2,766명의 체험학습 관광객이 개산툰진을 찾았고 개산툰진은 체험학습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경제적 수입을 높이면서 각 마을에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농산물과 수공업품이 큰 인기를 얻었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 연변일보

연길 빙설관광축제 41.5 억원 수입 기록

빙설경제의 '뜨거운 효과' 가속화

겨울 시즌이 끝나면서 제 11회 연길 국제빙설관광축제가 원만히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문화와 빙설, 겨울스포츠대회가 결합되면서 축제 영향력 확대, 관광객 참여 및 체험 강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빙설경제의 '뜨거운 효과'를 가속화했다. 아울러 연길시의 겨울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인지도와 명성을 향상시키며 연길의 겨울 관광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점을 이끌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3-2024 겨울 시즌 연길시는 272.7만명의 관광객을 맞이, 지난해 동기 대비 21.9% 증가하고 관광수입은 41.5 억원을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32.2% 증가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빙천설지도 금산



은산', '3억명이 빙설운동에 참여' 중 요 지시 정신과 성당위와 성정부의 '빙설경제 고지 구축' 전략 방침에 따라 연길시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확고한 수립을 주선으로 하고 길림성의 '1조원 규모 관광산업 조성' 전략에 발

맞춰 '민속문화'와 '빙설관광'을 잘 융합시키며 제 11회 연길국제빙설관광 축제 개최로 연길의 관광 소비를 끌어 올렸다.

올 1월 1일에 정식으로 개막한 제 11회 연길국제빙설관광축제는 5개

축제화장을 설치했다. 주회장은 부르하통하로 정하고 빙설환락원 및 제 7회 동북아빙설모터씨클대회를 개최했으며 이의 중국조선족민속원, 연길시인민경기장, 연길공룡왕국, 연길모드모아민속관광리조트 등에 4개의 분회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주제로 된 빙설 활동을 개최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빙설 체험을 선사했다.

이번 겨울 시즌 연길빙설환락원에는 23만 8,200명이 찾아들면서 533만 8,900원의 관광수입을 올렸다. 중국조선족민속원은 관광객 71만 7,100명을 맞이하고 1,780만 6,700원의 관광수입을 달성했으며 연길시인민경기장은 12만 3,600명의 관광객을 접대, 27만 1,800원의 관광수입을 올렸다. 연길공룡왕국은 방문객 4만 8,200명을 맞이하고 666만 5,900원의 관광수입을 달성했으며 모드모아스키장은 10만 8,900명의 관광객을 접대하고 1,066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 김영화기자

할빈 창의성 만점 굿즈 (周边) 제품 빙설경제 인기 바통 이어가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겨울 빙설 시즌도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할빈은 빙설경제와 관광산업의 결합으로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디어 상품인 증강현실(AR) 랭장고 마그네틱(冰箱贴)은 빙설대세계의 대관람차를 모티브로 한 정교한 디자인으로 빙설 시즌 내내 10만 개 이상 판매됐다.

이 제품은 디자이너들이 오래동안 연구해온 제품이다. AR 랭장고 마그네틱은 디지털 기술과 제품을 절묘하게 결합해 원래의 정태적 제품에 '움직임'을 더했고 관광객들의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굿즈 매장에서는 이외에도 '할빈'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랭장고 마그네틱으로 만들어져 선을 보였다. 음력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중앙대가의 한 굿즈 매장은 하루 매출이

약 7,000~10,000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역시, 테마 예코백, 다양한 인형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제품이다. 할빈 극지공원의 '도학 펭귄' 굿즈 매장은 2개월 만에 400여종의 굿즈가 2천만 개 이상 판매됐다.

해당 굿즈 판매원은 "빙설 시즌에는 거의 매일 다양한 제품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매장 내에는 제품을 소개해주는 직원도 생겼고 신제품 출시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든 굿즈 상품에는 지역 특색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그뿐 아니라 과학기술 역시 제품에 창의성을 불어넣고 있다. 할빈의 특색 넘치는 굿즈 시장은 빙설경제를 확장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 신화통신